

2010년 11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359조회)

내면의 아름다움  
内面の美しさ

아름다움은  
美しさは

내면에서 절로 나옵니다.  
内面からひとりで出てきます

겉치장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은  
うわべから美しさを探す人は

금방 겉치레가 들통이 나지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すぐに見せ掛けがばれるでしょう。本当の自分の姿を

자연스럽게 내보이면 모두가 알아봅니다.  
自然に出せば、みな分かります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꾸어갈  
自然の美しさを育てている

때입니다. 소박하게.  
ためです。素朴に

- 이우성의《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중에서 -  
- イ・ウソンの〈本当に大切なことは、ちょっと横にある〉より -

\* 때로는 겉치장도 필요합니다.  
\* たまには、うわべも必要です

잘 가꾸고 다듬어 아름답게 관리해야 합니다.  
よく育てて、手入れして、美しく管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내면도 잘 가꾸어야 합니다.  
しかし、同時に自分の内面もよく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本当の美しさは、表面から出てくることではないからです

내면에서 아름다움이 내뿜어 나오면  
内面から美しさがふきだせば

겉모습은 그다지 문제가  
表面は、それほど問題に

되지 않습니다.  
なりません。

절로

<1> [부사] ‘저절로’의 縮約形:おのずから;ひとりで。

<2> [부사] ‘저리로’의 縮約形:あちらへ;あっちへ。

겉-치장 [—治粧]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うわべだけを飾ること;外側を飾ること;うわべだけの装い。

걸-치레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うわべだけを飾りつけること;虚飾;見せ掛け。

들통

[명사] 秘密などがばれる形勢。

가꾸다

<1> [타동사] (植物などを)栽培する;(手をかけて)育てる。

<2> [타동사] 手入れをする。

소:박 [素朴]

[명사·하다형 형용사] 素朴;ありのままで飾りけのないさま;質朴。

다듬다

<1> [타동사] (身なりなどを)整える;きちんとそろえる;手入れする。

<2> [타동사] (文章などを)練る;推敲する。

내:-뽐다

[타동사] 噴き出す;噴き上げる;ほとばしる。

2010년 11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1,347조회)

딱 3년만  
びったり3年だけ

딱 3년만  
びったり3年だけ

남들이 혀를 차는 생활을 해보자.  
他人が舌打ちする生活をしてみよう

'아, 전혀 여한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あ、全然遺恨なく最善の能力を尽くしたと'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피투성이의 노력을 기울여 보자.  
自らに言っあげることが出来るくらい血だらけの努力を傾けてみよう

지금까지 어떤 경력도 쌓지 못했고,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いままで、どんな経歴も積むことが出来ず、何の技術も学力も

없다 해도 상관없다. 지금 당신에게 아무 것도 없다 해도  
ないとしても関係ない。いまあなたに何もないとしても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あなたはあなたが、夢見る全てのことをかなえることが出来る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고,  
なんでもすることができ、だれにでもなることができ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  
どんなことでも持つことができる

- 김애리의《책에 미친 청춘》중에서 -  
- キム・エリの<本に届いた青春> -

\* '3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3年'が重要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중요한 것은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重要なことは'遺恨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す

어떤 일을 여한이 없게 3년만 몰입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どんなことを、遺恨なく3年だけ没入すれば、人生が変わります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일하면  
あれこれ覗き込みながら、これも、あれもなく仕事をすれば

주어진 기회를 결국 허송세월하는 꼴이 됩니다.  
与えられた機会を結局、無意に歳月を送る有様になります

딱 3년만 혼을 담아 몰입하십시오.  
びったり3年だけ魂を込めて没入してください

다음 일들은 저절로 풀립니다.  
次の仕事はおのずから解けます

혀를 차다

《관용구》舌を打つ;舌打ちする。不平・不満(けいべつ)の気持ちをあらわす動作。

여한 [餘恨]

[명사] 遺恨。

피-투성이

[명사] 血みどろ;血塗れ;血だらけ;血だるま。

경력 [經歷]

[명사] 経歴;履歴。

なん-ら [何等]

[부사] 《「なにら」의 변한말. 否定語가 따름》 하등. 아무런. 조금도.

미치다1

[자동사] 狂う。

<1> [자동사] 氣が違う;氣がふれる。

미치다2

<1> [자동사][타동사] (ある場所に)至る;届く。

<2> [자동사][타동사] (ある事柄に話や思いが)及ぶ。

청춘 [青春]

[명사] 青春。

기웃-거리다

[자동사][타동사] しきりにのぞく;あっちこちのぞき込む。

허송 세월하다. → 허송

無意に歳月を送る。

풀리다

<1> [자동사] 解ける;ほどける;ほぐれる。

<2> [자동사] (凍ったものや寒さなどが)解ける;和らぐ;暖かくなる。

2010년 11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2,368조회)

그때는 몰랐다  
そのときは分からなかった

그때는 몰랐다.  
そのときは分からなかった

길을 걷는다는 것과  
道を歩いていることと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道を見つけることがどれだけ違うかを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人々は時々私に問う。こんな美しいところに

사니까 정말 행복하겠다고. 정말 보람있겠다고.  
住んでいるから本当に幸せだと。本当に価値があると

얼마나 좋으냐고. 근심걱정이 없겠다고.  
どれだけいいかと、心配がないと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있다.  
大方あっている。幸せで、価値がある。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내면서도,  
しかし'世界で、一番平和で、幸せな'道をつくりながら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 분노하고, 절망한다.  
私は、時々つらく、たまには怒り、絶望する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愛にたいする渇きで苦痛になる

- 서명숙의《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중에서 -  
- ソ・ミョンソクの<かつかつと歩いていくこの道のように>より -

\* 결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  
\* けっして他人の話のようではなく

저도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오로지 꿈 하나로  
私も鼻先がずきずきします。ひたすら夢ひとつで

'제주올레' 길을 처음으로 낸 사람의 보람과 행복,  
'濟州オーレ(濟州島ウォーキング)'道を始めて作った人の価値と幸せ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고독과 고통을 누가 죄다 알겠습니까?  
しかし、彼に劣らない孤独と苦痛を、誰がみな分かるでしょうか?

아침편지를 쓰고 옹달샘을 꿈꾸면서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朝の手紙を書いて、小さな泉を夢見ながらも、そのときには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

꿈을 꾸다는 것과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夢見ることと、夢をかなえることがどれだけ違うことかを

보람과 행복도 크지만 외로움과 고통도 크다는 것을.  
価値と幸せも大きいが、つらさと苦痛も大きいことを

함께 가는 동반자의 힘이 얼마나 크고  
一緒に行く同伴者の力がどれだけ大きく

감사한 일인지를...  
感謝することかを...

간:혹 [間或]

[부사] ときたま;ときどき;たまに;時折。

보람

<1> [명사] (その行為に値するだけの)しるし;甲斐;値打ち;効果。

<2> [명사] (忘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区別するための)目印め...

얼추

<1> [부사] 大方;大体;あらし。

<2> [부사] ほとんど近く。

종:종 [種種]

[부사] 時々;時たま;たびたび;折り折り;しばしば;ひよいひよい。

꼬닥꼬닥

[부사] [북한어]물기 있는 물건이 마르거나 얼어서 깨 굳은 듯한 상태.

코-끝

[명사] 鼻面;鼻先。

시큰-하다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關節などが)うずく;ずきずきする。

못:지-않다

[형용사] 劣らない;遜色ない。

죄다2

[부사] 何もかもすべて;すっかり;ひとつ残らず;皆。

2010년 11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1,277조회)

노닥거릴 친구  
ふざける友達

마음을 열고  
心を開いて

함께 노닥거려줄  
ともにふざけあえる

진정한 친구를 만나야 한다.  
本当の友達にあわなければならない

어디서 만나야 하나고?  
どこで会うのかって?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自分が本当に好きなことを探してみよう

하고 싶은 일을 가르치거나, 하는 곳을 찾아서  
したいことを教えたり、することを探して

사람들과 소통해 보자. 사람을 골라 만날 때 우선,  
人々と疎通してみよう。人を選んで会うときまず

본인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나서는 방법이 좋다.  
本人が好きなおところを探し出す方法がよい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하면서  
そこから、会った人と疎通しながら

관계망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関係網を広げていくことです

- 최영선의《마돈나, 결혼을 인터뷰하다》중에서 -  
- チェ・ヨンソンの〈マドンナ、結婚をインタビューする〉より -

\* 역사와 민족을 논하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 歴史と民族を論ずる友達も必要です

인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人生と愛を話す友達も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가장 편안한 친구는 함께 '노닥거릴' 친구입니다.  
しかし一番平安な友人はいっしょに'ふざける'友達です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친구.  
何も言わなくても、目線だけ見れば通じる友人

어느 곳에서 만난 친구인지도 중요합니다.  
あるところで会った友達でも重要です

좋은 곳에서 만나야 좋은 꿈을 나누며  
いいところであって、よい夢を分けて

20101104.txt

더 멋있게 노닥거릴 수 있습니다.  
さらにかっこよく、ふざけることができます

노닥-거리다

[자동사]つまらないことをぺちやくちゃしゃべりふざける;油を売る。

망 [網]

[명사] 網。



2010년 11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1,470조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私一人で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

나는 결국 나 혼자  
私は結局私一人

사는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生きてるのではないことを分かりました。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私の中に入ってくること、ご飯のおかずとしてあがっているもの

심지어 내가 마시는 물도 저 시냇물의 물 한 방울이고,  
さらには、私が飲む水も、あの小川の水1滴で

내가 마시는 이 공기도 나무가 밤새도록 내뿜는  
私が吸うこの空気も、木が一晩じゅうふきだす

산소 한 모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을  
酸素ひと呑み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私の体を

살찌우는 곡식과 채소들이 저 들판에서  
太らせる穀物と野菜が、あの野原から

나왔다는 걸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出たことを分かるのに、たくさんの時間は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의식은  
かかりませんでした。私の意識は

자연에서 자양분을  
自然からの滋養分を

얻었습니다.  
得ました

- 이우성의《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중에서 -  
- イウソンの〈週末大切なことは、ほんのそばにある〉より -

\* 사람과 자연은 하나입니다.  
\* 人と自然はひとつです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人は自然と一緒に生きていきます

내가 내뿜는 탄소를 나무가 좋아라 마시고  
私がふき出す炭素を、木が好んで飲んで

나무가 내뿜는 산소가 나에게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木がふき出す酸素が、私には生命の根源になります

삼라만상이 어느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森羅万象が、どのひとつも別に落ちれば、一人で存在することが

없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오만하게 굴면  
ありません。まるで一人で生きているように傲慢に振舞えば

자연은 어느 날 성난 얼굴로 나타나  
自然はいつの日か、怒った顔を現し

사람들을 호되게 혼을 냅니다.  
人々を手厳しく怒ります

심:지어 [甚至於]

[부사] 甚だしくは;さらには;それだけでなく。

시:냇-물

[명사] 小川の水。

방울<sup>2</sup>

<1> [명사] 玉のようなかたまりになった液体。

<2> [명사] (助数詞的に)…滴。

내:-뿌다

[타동사] 噴き出す;噴き上げる;ほとばしる。

모금

[의존명사] (液体や気体などを)口に含む一回分の量。

살-찌우다

[타동사] ‘살찌다’의使役:肥やす;太らす。

들:-판<sup>2</sup>

[명사] 野原;平野;原っぱ。

오:만 [傲慢]

[명사·하다형 형용사]<스럽다형 형용사> 傲慢;おごりたかぶって人を侮るさま。

굴:다<sup>2</sup>

[자동사] 副詞形の用言に付いて「そういうふうに行動すること」を表わす語:振舞う。

호되다

[형용사] 酷い;手厳しい;手酷い。

2010년 11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507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민수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ミン스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 마음 언제나  
私の心はいつも

그리움만으로  
懐かしさだけで

그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あなたを愛せるとおもいました。

장미꽃 한 송이로  
バラの花一輪で

사랑하는 마음 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愛する心を伝わるとおもいました。

반짝이는 보석으로  
光か輝く宝石で

사랑하는 마음 조금은 더 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愛する心を、少しはさらに伝わるとおもいました。

그리고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そして、ひとつ忘れたことがあります。

내 마음 언제나 하나  
私の心はいつもひとつ

그대에게 가는 단 하나의 길  
あなたに向かう、ただひとつの道

그 길이었다고  
その道だったと

그 마음이었다고  
その心だったと

- 홍광일의 시집 <가슴에 핀 꽃>중에서 -  
- ホン・グワニルの詩集<心に咲いた花>より -

\*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 私たちが世の中に来た理由は

큰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大きな真実を分かるためです。

그것을 일찍 깨닫고 실천하는, 영혼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それを早く気づき、実践する魂が高い方々もいます。

20101106.txt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도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男女間の切実な愛も、この悟りを得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

그 사랑을 확대해 나가면 큰 진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その愛を拡大していけば、大きな真実を見るようになるからです。

그러나 대부분은 물질에 눈이 멀어,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しかし大部分は物質に目がくらんで、見えることだけに消耗して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쯤에 이르러  
あたふたと生きていきます。結局世の中を去るときくらいにいたって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分かるようになるが、そのときは手遅れです。遅れる前に

사랑하고 사랑을 배워서 삶의 큰 진실을  
愛して、愛を学んで人生の大きな真実を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見る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

매:-달다

[타동사] つる;つるす;ぶら下げる。

허둥-지둥

[부사·하다형 자동사] あわてふためくさま:そそくさと;あたふた。

-쫘

<접미사> 程度を表わす:…程;…くらい;…頃;…ばかり。